산 옮기기와 구름

(마17:14~20)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산 옮기기와 구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산에서 내려 오셨을 때에, 변화산 체험이 끝난 뒤의 이야기 입니다.
제자들이, 나머지 아홉 명의 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주 큰~ 난리 통에 말려들어가 있는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못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못 고친 것을 서기관들이 와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꾸지람을 하신 뒤에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
참, 제자들의 이 그야말로 대중들 앞에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간질병아 나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고 비난했고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했지요?’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도, 산을 옮겨지라고 명령했어도 그 산이 옮겨졌을 것이다,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산 한번 옮겨 보셨어요? 산이 뭐지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백두산, 한라산, 뭐 금강산, 설악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면 인간의 힘만으로 내 능력한계 안에서라면, 할 수도 없앨 수도, 뚫고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난관을 산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상상도 못해요, 산이 옮겨질 거를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커다란 문제라도 겨자씨만큼, 겨자씨…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 그랬어요, 예수님 비유에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
겨자씨 만큼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큼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지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거니까,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텐데 산이 안 옮겨지는 거 보면 산은커녕 언덕배기하나도 못 옮기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거다,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뭔지를 한번 이 본문에 충실해서, 전후맥락을 의식하면서 본문에 충실해서 믿음이 뭔가 한번 오늘 따져 봐요.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다 갖자고요.
자~ 먼저, 산 옮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 임의대로 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느끼는 필요를 따라서,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쓰며 사용하며 발휘할 수는 없어요, 임의대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산을 옮기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그럴 때,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위에서 말씀이 들리면서 하는 말씀이'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위와 구름 아래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기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구름 위에서 산을 옮기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야 됐고,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산을 옮기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 주실 때, 이일이 가능해 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름아래 있는 몸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 나한테서부터 산을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낀다고 해서 산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산을 옮겨야 되는 일 자체가 일어나려면 구름 위로부터 내 마음 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산을 옮겨라'라고 있어야 되고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확신, 내 신념, 내 판단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 위로부터 말씀이 주어져서 '산을 옮겨라'라는 구름위에 있는 생각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내 생각이 될 때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땠는지.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안 물러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는, 나서는 제자 있고 뒤에 처져있던 제자들은 '어, 내가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말한다고 귀신이 나갈까? 귀신이 나가면 다행이지만 안 나갈 때는 이 무슨 개망신이냐…' 그런 생각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구름 위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내 생각이 될 때는, 이러한 주저함과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어져 버리면, 그대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구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애를 쓰고 진땀을 흘리고 악을 악을 쓰다 보니까 그 모습이 더 귀신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 모습이 더 귀신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은 이쪽에 들린 것 같아요.
왜? 구름 위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말씀이라야만 가능한데, 이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말과 생각이 하나 아닙니까? 입 밖으로 나온 게 말이라면, 입 안에 들어있는 게 생각이지요.
입 밖으로 나온 생각이 말이고, 아직 말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생각이지요.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말, 구름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건 우리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구름 위에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은, 그 말씀 속에서 천지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앞수표.
우리의 말은 공수표가 많아요, 말대로 현실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그 자체가 곧 현실로 나타나는 자기앞수표와 같은 겁니다.
그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현찰은 아니지마는, 현찰과 똑같은 자기앞수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산을 옮기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으려면 구름 위로부터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구름 위로부터 새삼스럽게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세요, 구름 아래서 살고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비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행동도 하십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산을 옮기셨다 하더라도, 그건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구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산을 옮기려는 하나님의 구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변화산 위에서 체험 중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인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 그에게 내가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을 넣어주는지 아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말을 넣어줄 것이고 너희는 그에게 들어라' 이건 모세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세하고만 대면을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구약전체의 언어를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말, 모든 열왕기상, 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모세의 말씀이 지배해서 그걸 기준으로 나쁘다 그르다 판단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거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언어와 행동과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구름 위에서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봐요.
사랑하시는 것, 정도와 질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만 아들로서 사랑하시겠습니까?
피조물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분명히 정도의 차이도 있고 질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참새,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새를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중의 새를 사랑하시잖아요. 들풀도 사랑해서 입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은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질과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뻐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요,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그러잖아요? 패륜아 자식이라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자식을.
그러나 그 패륜아 자식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어요,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으로.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산을 옮기는 일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요? 산을 옮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야.
그 산을 옮긴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계~속 지금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구름 위로 구름 아래서 살고 있는 자의 마음이 구름을 뚫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추석 때 자녀들이 바리바리 싸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러 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바리바리 싸온 것 때문에 기뻐요? 아니, 그냥 부모님을 찾아와서 얼굴을 마주 대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왜 하나님께 기쁨입니까? 구름 아래에 우리 마음의 관심을 끌 많은 요소가 있어요.
사업, 강력한 관심거리입니다.
자녀, 강력한 관심거리에요.
내 건강, 무지무지하게 강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관심거리, 24시간 관심을 줘도 모자랄 판에 구름 아래에 관심거리를 다 놔두고 구름 위로, 구름을 뚫고 뻥! 하고 올라와서 하나님보좌 앞에 우리 마음이 딱 가서 아버지를 마주대할 때,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이구,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보좌 앞에 구름을 뚫고 올라간 자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산을 옮길 건데, 너를 통해서 옮겨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산을 옮길 계획이 있거든? 아이구 마음이 올라왔냐? 내 기뻐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모든 관심거리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관심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구름을 뚫고 올라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뚫고 올라온 마음이 뻥! 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뽕! 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아이구, 이게 누구냐? 그 많은 관심거리 다 놔두었어? 아이구, 저런… 저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바쁜데 어떻게 왔어~' '아이, 그래도 와야죠!' 그 바쁜 일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한가~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 와, 그리고 일이 없어서 와. 그래도 사랑해요 부모님은.

여러분,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볼 때 예수님, 땅 위에 사시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만 달랑 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황홀경 속에서 봤던 그 천국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육체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이들 앞에 그렇게 황홀하게 만들었던 그 천국은 있는 거예요.
단지 장막에 가리듯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그 영화로운 모습은 그대로 있고, 천국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이 있고 그 보좌에 그 하나님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 게 뭐에요? 관심이에요, 관심.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아버지가 실제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에요.
하여간 인터넷 포탈싸이트를 딱 켜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3구 부동산 시세입니다.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3구에 내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도 없고, 사돈의 8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되는 자의 재산이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평창과 강릉주변 땅 값이 역사 이래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산 하나 없어도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그게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강남3구는 아무리 요동질 쳐도 관심이 안 가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자~ 구름 위에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실제라면,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강남3구의 부동산 시세나 평창주변의 땅값이 올라가는 일보다도 더 나중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위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는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므로 패역한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패역한 세대가 뭐에요?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라틴어로 'homo incurvatus in se' '나 자신에게로 굽어진 존재'
즉 패역하다는 말이 굽어졌다는 뜻이에요, 굽어졌다는 뜻.
관심이 구름 아래 나에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요.

그러므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무슨 얘깁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너희가 구름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구름 뚫고 올라간 너희 마음에 산을 옮기려는 계획을 넣어주시면 너희가 산을 옮길 것이고, 바다의 물을 없애는 하나님의 생각을 관심이 있어서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간 너희의 마음에 넣어주시면 바다를 말려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하나님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면, 강남3구에 내 재산이 있는 게 실제라면, 관심 안 둘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게 실제라고 믿는다면,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고, 관심을 뒀다면 하나님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줬을 것이고, 그랬다면 산도 옮길 수 있었을 것인데, '너희 관심은 구름 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뭔 줄 아느냐? 산을 옮기는 것만이 관심이다, 구름 아래서 산을 옮기는 것만이 관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패역한 세대라고, 나 자신에게 관심이 굽어져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패역한 세대이고, 관심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을 옮기고 싶으세요?
산을 옮기고 싶은 일에 대한 관심을 끊으세요.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산 아니라 산맥이라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지요.
산 옮기기, 산에 대한 관심 끊고 구름 위로 우리 마음이 올라설 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구름위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관심을 갖게 해 주셔서, 구름 뚫고 올라가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내 마음에 이 구름 아래서 이루고저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들이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